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전국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제27회 전국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시상 내역 장관상 및 금상 10건(금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300만원)

은상 20건(은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200만원)

동상 20건(동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100만원)

장려상 00건(상장 및 부상)

※ 금상 이상 수상자는 장학금과 별도로 100만원을 수상자가 지정하는 비영리기관에
기부 가능<상세 내용은 수상 후 별도 안내>

※ 추천 선생님 전원 감사장 및 부상 수여, 응모자 전원 소정의 기념품 증정

응모방법 응모자격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청소년(개인 및 동아리)

*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도 응모 가능

응모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자발적인 봉사활동 사례

응모기간 4월 15일(화) ~ 6월 9일(월) 24까지

응모방법 대회 홈페이지 상세 내용 참조



주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후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KB금융그룹,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제26회
2024

전국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수상사례집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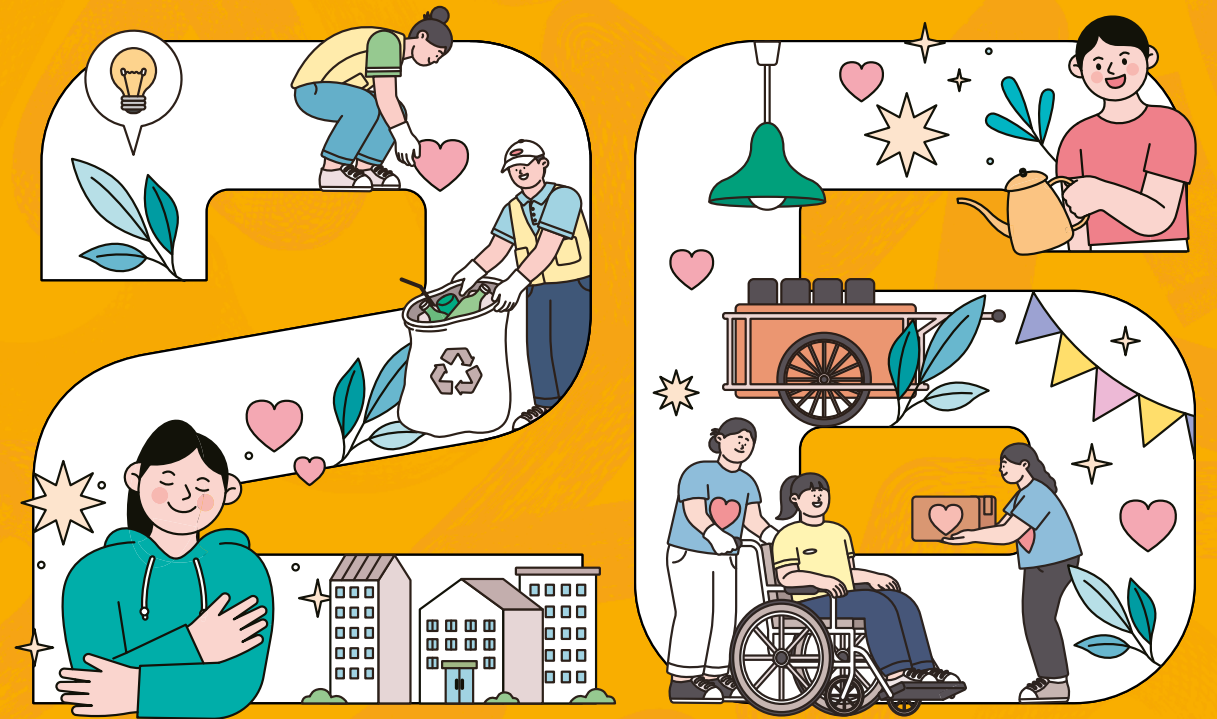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 한국중등교장협의회

교육부 장관상	04
어스 정재훈	강원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전 특공대 대구 스스로 이론 작은 변화, 더 큰 변화를 만들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06
옹달샘 스트로베리	강원 깨끗한 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다 경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08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이지호	경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타파, 봉사로 세상으로 나아가다 경남 내공이 쌓이는 봉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금상	10
NOW 김준환 박서현 About Jeju	경북 수달에 관한 호기심, 지역사회와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다 부산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꿈꾸게 되다 전북 국경선이 없는 봉사의 힘 제주 뿌리를 내디뎌야 하는 탄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은상	14
경기 강민재, 배운서, 이부건, The Mind Shelter Project* 경북 노민혁 서울 권순범, 김수애, 베스트버디스SATC 제주 이다인	경남 최재림, 오리들의요리나눔 대구 이준하 대전 Flow Communicators 울산 송다은 인천 구서희, 최윤영 충남 진종우, 유스플러스* 충북 재능나눔동아리 모꼬지*
동상	22
경남 밀리미터 대전 방유정, 지구별 방위대* 인천 서지훈, 나비봉사단 제주 세이브제주바다 유스클럽*	경북 네일더예쁨 광주 청토리* 대구 권혜수, 온맘다해* 부산 김민하 서울 박병주, 장환준 전남 왕윤성, 조용민, 빵보드레 전북 유지은, OVC(구.동요) 충남 최혜울 충북 주명훈
대회 소개	27

*학교 연합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26번째

우수자원봉사 사례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전 특공대



어스

사북중학교 김소이 등 5명

강원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지구(earth)를 지키는 '어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 '어스'는 '우리(us)가 지키는 지구(earth)'라는 뜻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023~24년도엔 동계청소년올림픽 기획단으로도 활동하며 체험 부스를 운영했던 '어스'는 지역을 넘어 세계인과도 연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상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결국 지구를 지키다

'일상'과 '지역',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활동하는 '어스'는 먼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환경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물 절약&전기 절약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고, 빗물받이에 담배꽂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빗물받이 바닥에 '고래' 모양 그림을 그려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어스'는 지역사회에 이들만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특히 학교나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곳곳에는 환경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어스'가 만든 넋지 스티커가 붙어 있다.

'어스'는 '지역'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많은 동네 특성상 무분별하게 많이 버려지는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캠페인을 하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플로깅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나 플로깅 활동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매년 진행하는 연간 행사로 발전되기도 했다.

동아리원들은 삼푸바와 고체 치약을 직접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활동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매월 환경과 관련된 날과 연관 지어 작은 캠페인을 진행해보겠다는 '어스'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 환경보전 활동을 찾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심사평

지구의 환경을 주제로 강원도 정선 지역의 문제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와 손을 잡으며 지역 연계성을 강화한 점이나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캠페인을 벌여 자연스럽게 파급 효과를 불러온 점을 크게 칭찬한다.

스스로 이룬 작은 변화, 더 큰 변화를 만들다



정재훈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대구

별점을 지우기 위해 시작한 봉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다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매일 하느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못해 별점이 쌓인 재훈이는 별점을 없애기 위해 처음으로 달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거의 매일 8시간을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피구, 풋살, 배드민턴과 같은 야외 체육활동을 지도하였다. 또한 이 외에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으로 봉사활동 범위를 넓혔는데, 그러면서 점차 재훈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변화로 친구들의 변화를,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다

항상 예민해 있었던 재훈이는 초등학교 지도 교육 멘토링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무수히 많이 쌓여있던 별점을 상점으로 바꿔낸 재훈이의 이런 변화는 모범사례로 소개가 되며 다른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봉사동아리에서 플로깅과 같은 환경 정화 활동을 오래 한 재훈이는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지니게 됐다.

한 사람만 청소한다고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환경 정화에 힘쓴다면 충분히 큰 힘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된 재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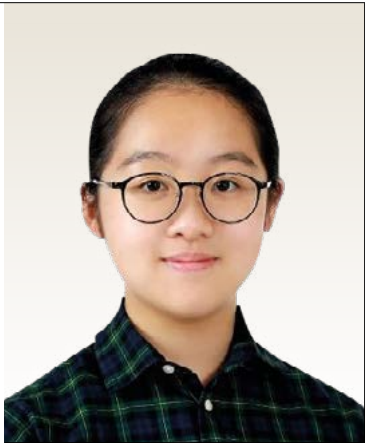
처음엔 별점 때문에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동네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봉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더 멋진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을 꾸고 있다.

심사평

처음엔 별점을 없애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니 삶의 원동력과 자신감까지 얻게 된 점이 눈에 띈다. 모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한다.



깨끗한 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다

**웅달샘**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지아 등 17명

강원

물 부족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봉사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물 부족 현상에 관심을 갖고 2014년부터 활동해온 '웅달샘'은 적정기술을 활용해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깨끗한 식수 공급을 도와왔는데, 특히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베품이 아니라 쌍방향의 지속 가능한 봉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진취적으로 개척하여 만들어낸 깨끗한 식수 선물

해외 봉사를 위해 후원이 필요했던 '웅달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위해 많은 단체에 메일을 보내며 직접 문을 두드렸다. 진심을 알아준 몇몇 단체에서 회신을 받은 '웅달샘'은 2023년, 라오스에 깨끗한 식수를 선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라오스에 가서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선 배경지식이 필요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휴대용 정수기의 하나인 멤브레인 정수기에 대한 이해와 조립법을 배우고 필터를 제작했다. 그렇게 현지 환경과 박테리아 크기를 고려하여 직접 제작한 멤브레인 필터 정수기를 들고, 라오스 방비엔으로 가서 마을의 한 학교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웅달샘'은 라오스 학교 아이들에게 문화 교류와 위생 교육도 진행했는데, 손 씻기와 양치하는 방법을 춤과 노래로 만들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치약과 칫솔 같은 위생용품도 함께 전달했다.

기술 개발을 도울 수 있는 3D 프린터도 구비했다는 '웅달샘'은 지난 봉사 경험들을 토대로 더욱 발전한 기술, 더욱 발전한 봉사를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모금 및 홍보 캠페인까지 활발히 진행해보려 한다.



심사평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지식과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라오스에 직접 방문해 현지 기술로 관리가 가능한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스트로베리**

양산여자중학교 안시은 등 8명

경남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교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율봉사동아리로 시작한 '스트로베리'는 대한민국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성을 인식하면 수어 동작으로 바꾸어주는 앱이나 모든 장애인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키오스크를 개발해내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에서 오는 봉사의 힘

청각 장애인을 만났을 때 마스크로 가려진 입 모양 때문에 소통이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된 '스트로베리'는 직접 수어를 공부하고, 코딩을 배워 '수어 대화 도우미 앱'을 개발해냈다. 또 장애인 분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터치형이 아닌 대화형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오키'를 개발했는데, 이는 특허 출원까지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4년에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집에서 생동감 있게 언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고평지 VR 키트를 고안해냈다.

이러한 개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받게 된 상금을 '스트로베리'는 모두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지관과 MOU를 체결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스트로베리'는 더욱 다양한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창의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도 가치 있는 봉사라는 걸 깨달은 '스트로베리'는 앞으로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심사평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인식한 후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대화 앱 개발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화형 키오스크 개발이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타파, 봉사로 세상으로 나아가다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성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지현 등 16명
경기

학교가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있다는 외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기획하는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꿈드림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월 2회 이상 정기 회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월 8회 이상 활동하면서 활발하고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되찾는 드림윙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는 지역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를 실천해왔다. 플리마켓에서 빵과 빙수를 판매해 폐지 줍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사서 편지와 함께 전달하기도 하고, 카드와 동전 지갑을 직접 제작해 지역의 공동생활 가정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루 인형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남은 모루 인형 재료로 제작&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역시 지역 어르신들께 기부할 예정이다.

소속감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심하게는 은둔형 외톨이를 자처했던 단원들은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정체성을 되찾고 있다. 또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사회성도 회복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까지 가지게 됐다.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하면서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심사평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개인적인 위축감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도우며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낸 점을 크게 칭찬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기대된다.

내공이 쌓이는 봉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이지호
고성중앙고등학교 1학년
경남

우연히 시작했지만, 프로 봉사원으로 레벨 업

우연히 엄마를 따라 어르신들에게 가구를 꾸며 나눠드리는 봉사를 처음 한 지호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마음이 움직였던 경험에 자발적으로 봉사의 범위를 넓혀갔다. 각종 봉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주변에 필요한 도움도 직접 찾아내며 적극적으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가족봉사단에서 청소년 지원활동까지, 봉사는 전염성이 강하다

가족봉사단만 세 곳에 속해 있는 지호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식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생활 공간 정리도 돕고, 다문화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시설을 방문하거나 김장 나눔 축제를 돕기도 하고, 명절 음식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점자 동화책도 만들어본 지호는 봉사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다.

또한 지호는 청소년 지원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는데, 2024 전국 청소년 대토론회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더불어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올바른 분리수거에 대한 QR 코드' 제작 아이디어를 발의했는데, 실제로 관내 수거장에 실현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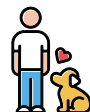
봉사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지호는 미래에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면 3대가 함께하는 가족 봉사활동을 하겠노라고 꿈을 꾸다. 사람은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심사평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서 청소년 지원활동까지 아주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봉사대상을 참여하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참여 등 세분화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돋보인다.

수달에 관한 호기심, 지역사회와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다



NOW

문화중학교 김강민 등 20명

경북

천연기념물 330호를 지켜라

2021년 학교 앞 충효천에서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목격됐다는 이야기에 수달에 관한 관심으로 만들어진 'NOW'는 하천 정화 활동으로 봉사를 처음 시작했다. 그러다 점차 탄소 중립, 유기견 보호 활동, 도박 중독 캠페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봉사의 범위를 넓혀갔는데, 결국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본인들 스스로의 내면까지도 더욱 단단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

수달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스스로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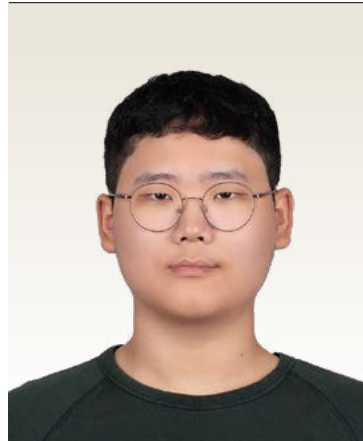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을 지키기 위해 수달 서식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꾸준히 해온 'NOW'는 점차 사회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학교 텃밭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해 무료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도 하고, 유기견&유기묘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청소를 돕기도 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봉사를 하며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바로 본인들 스스로라고 말하는 'NOW' 친구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배우며, 지역사회에 어울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봉사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더욱 짊 잡으며 끈끈해진 'NOW'는 진정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활동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계획이다.



심사평

환경문제 해결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눈에 띄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선배들의 활동 범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봉사 범위를 확장한 점을 크게 칭찬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꿈꾸게 되다



김준환

해강고등학교 3학년

부산

받았던 도움을 다시 되돌려주는 법을 알게 되다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준환이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매 순간 희생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 배려해주는 학교 선생님들, 응원해주는 친구들.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환이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존재를 넘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직접 발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꾸준히 하다 보니 봉사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내는 프로 프로그램 메이커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서 기획 멘토링 봉사를 시작한 준환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월별로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더 많은 경험을 주게 할지 고민하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왔다. 동아리 부장을 맡게 되었을 땐 '아이들이 즐거우면 좋겠다'라는 딱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거운 활동들을 기획했는데,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추석 기념 연날리기 등 결국 기획한 활동들이 뜨거운 호응을 만들어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도 준환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푸룻푸룻 셀러드 만들기, 족방울 놀이 프로그램 등 회기별 주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며 친근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성장하며 자신감과 리더십도 얻게 됐다는 준환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환이의 도전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심사평

본인의 장애를 봉사활동으로 승화한 점을 높이 칭찬한다. 도움을 받는 자이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자로, 공생하는 삶을 훌륭히 살아가고 있으며, 본인의 어려움을 기꺼이 오픈하고, 필요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가 크게 돋보인다.

국경선이 없는 봉사의 힘



박서현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영재아카데미 11학년

전북

세계로 뻗어나가는 봉사 정신

여든이 넘는 연세에도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존경하는 서현이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처럼 이웃에게 힘이 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선물하기도 하고, 탈북민을 위해 여러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통역까지 도우며 봉사의 힘을 세계로 뻗치고 있다.

주변 이웃을 넘어 전 세계 이웃으로, 봉사는 계속 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서현이는 중증 장애인들이 음악 연주를 들을 때 짓는 환한 미소를 연료 삼아, 학교 시험과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버거울 때도 공연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탈북민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는데 탈북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연탄을 배달하고,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식사를 돕는다.

또한 서현이는 세 개의 봉사 클럽을 이끌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국제 교류 봉사 클럽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개최하고, 3D ART 제작으로 기부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제 교류 클럽으로 다져진 서현이의 경험은 2023 세계잼버리에서 빛을 발하게 됐는데, 범스카우트 대원으로서 행정 관계자와 외국 지도자 간의 통역도 돕고, 외국 대원들이 언어 소통으로 고생할 때 통역을 자처하면서 소통을 도왔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시야가 생겼다는 서현이는 앞으로도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사평

봉사활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성장과 더불어 그에 걸맞은 새로운 봉사 활동을 개척해 나가는 '사고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준 점을 크게 칭찬한다.

뿌리를 내디녀야 하는 탄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About Jeju

NLCS제주국제학교 서유란 등 8명

제주

제주 농촌 지역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길

코로나19 팬데믹이 풀려도 제주 고유의 시장이 아니라, SNS에 많이 노출되는 감성 카페 등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문득 발견한 'About Jeju'는 제주 농촌 지역의 고유문화를 전통을 보존하고 더 널리 알릴 방법을 고심하게 됐다.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고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메뉴판 번역부터 통역 앱까지. 제주도를 살리기 위한 도전

먼저 제주 문화와 대중 만남의 장인 '시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학교를 다닌다는 이점이 있는 'About Jeju' 친구들은 시장의 지도와 가게의 메뉴판을 번역하여 대중이 효과적으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SNS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문화가 두드러지는 계절 축제와 편의 시설 등을 조사하여 여러 언어로 공유했다.

이로 인해 통역 앱 제작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시장처럼 제주 문화가 잘 보존되는 장소에는 한국인도 알아듣기 어려운 제주어가 오가기 때문에 제주어를 표준어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관광객과 상인분들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제주 포럼에 참여해 해녀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진행했는데, 해녀들의 이야기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특목히 이바지할 수 있었다.

본인들의 존재가 더이상 필요 없는 제주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About Jeju'는 책임 의식을 갖고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예정이다.

심사평

학교가 있는 제주 지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돋보이며, 직접 부딪히며 배워나간 사회의 이해와 학습 과정을 높이 평가한다.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봉사 학습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뤄낸 공간 재생 프로젝트

강민재 | 인천제일고등학교 2학년

경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선배들을 보며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열망을 싹틔운 민재는 중학생이 되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요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진행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시기엔 방역 활동도 하며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 왔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낸 건 ‘공간 재생 프로젝트’였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관리가 잘되지 않는 넓은 옥외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냈다. 2020년엔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벽화를 그렸고, 그다음 해엔 바람개비와 풋말 등을 이용해 공간을 디자인했고, 2022년부터는 변화된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축제를 진행했는데, 결국 이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청소년지도사’라는 꿈을 갖게 된 민재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심사평

청소년문화의집 옆 옥외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변모시키는 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훌륭히 실행해냈는데, 외벽 청소부터 청소년 축제 개최까지 주도적이고 꾸준하게 활동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다문화가정부터 재소자 가족까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열린 봉사의 자세

배윤서 | 페이스튼기독교재학교 9학년

경기

사회적 편견이나 관심 부족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윤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인, 농어촌 어르신, 재소자 가족 등 모두가 동등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어가 서툴러 한인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본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한국어 수업을 2년 동안 진행하며 소통을 도왔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장애인 토크 콘서트를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농어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치매 예방을 위하여 ‘치매 예방 운동 박스’를 공부해 직접 가르쳐드리기도 했다. 어느 크리스마스 시즌엔 재소자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후원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주변의 많은 이웃을 도와온 윤서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심사평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을 지도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과 의료 봉사도 펼치는 등 본인의 특기와 시간을 잘 활용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마음과 재능을 나누다

이부건 | 가운중학교 1학년

경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네 식구가 살아온 부건이는 ‘사람이 삶’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나누고 기릴 수 있는 비영리단체, ‘쉐어유’를 엄마와 함께 만들었다. ‘쉐어유’ 창립 멤버인 부건이는 사회적배려층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도 해오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봉사도 해오고 있다. 2023년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상 레저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직접 장소를 찾고, 공사하고, 장비를 마련해 결국 ‘쉐어유 바이 고파크’를 만들었고, 덕분에 보육원 아이들, 지역의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이들 등에게 SUP보드체험 재능기부 봉사를 할 수 있었다. 2024년엔 ‘쉐어유’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한강지킴이 봉사단체로 선정되어 줄깁, 유해식물제거와 같은 환경 정화 봉사도 하고 있다. 앞으로 부건이는 ‘쉐어유’를 통해 더 다양한 사회 참여 봉사를 해내는 것이 목표다.

심사평

가족과 함께 봉사단체 ‘쉐어유’ 창단하여 본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즐거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지역의 관계기관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DMZ 생태기록을 통해 전파하는 평화와 통일의 가치

The Mind Shelter Project | 서울국제학교 박예찬 등 4명

경기

DMZ 안에서 생태를 연구하는 게 주요 활동 중 하나인 ‘The Mind Shelter Project’는 DMZ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철새와 주요 생물종을 조사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학교와 성남시청에 전시해오고 있는데, 특히 철새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4개국 10개 학교 학생들이 연합해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포럼(Youth International Peace Forum · Concert)을 개최해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청소년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의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The Mind Shelter Project’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치를 계속 전파해 나갈 것이다.

심사평

DMZ 생태를 연구하고, 찍은 사진을 학교와 시청에 전시하고, 관찰한 철새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으며,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환경 오염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한 봉사활동, 꿈을 찾게 되다

최재림 | 통영동원고등학교 3학년

경남

중학생 때, 바다에서 수영하다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재림이는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결국 교내 환경봉사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이후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했지만, 일반적인 환경 교육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걸 느낀 재림이는 ‘화성 이주 로켓’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참여자가 부스에 들어가면 심각하게 오염된 지구를 벗어나 화성으로 이주하지만, 또다시 사람들로 인해 화성마저 환경이 오염된다는 스토리가 펼쳐지는 ‘화성 이주 로켓’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지면서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도 학교에 직접 방문해 체험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지역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보면서 ‘축제 기획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재림이는 앞으로 환경 관련 지역 축제를 개발해보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심사평

지역의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을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 역할에 맞는 활동 일감을 찾아낸 것이 돋보인다. 이후 축제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확장성과 진로 모색으로 연결되는 성장 발전과정이 기대된다.



요리 나눔을 통해 깨닫게 된 ‘우리’의 가치

우리들의요리나눔 | 거창여자중학교 정다현 등 5명

경남

동아리 부원들의 공통된 관심, ‘요리’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뜻을 모은 ‘우리들의요리나눔’은 요리 나눔을 통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에서 체험 부스를 활용하는데, 축제의 특성이나 축제 당일 날씨를 고려해 메뉴를 선정하고, 요리를 하며 모두 자발적으로 활동을 이어 간다. 또 누구나 음식을 포장하여 가져다 둘 수 있고, 필요하다면 누구나 요리를 꺼내먹을 수 있는 마을의 ‘공유 냉장고’에 요리를 넣어두는 나눔 활동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로 ‘우리들의요리나눔’은 지역 축제나 지역의 동아리 정산 보고회 등에서 우수상을 받는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나’에게 집중되던 삶의 초점이 ‘우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리들의요리나눔’은 앞으로 더 많은 부원들을 모집해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심사평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유냉장고 음식 나눔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특성을 잘 살린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크게 돋보인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한 전문 해설 봉사인

노민혁 |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3학년

경북

울진 왕피천공원 곤충여행관에서 해설 봉사를 재미 삼아 한번 해봤던 민혁이는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직원 의 요청에 정식으로 해설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엔 본인의 재미를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됐다는 민혁이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할지 연령대별로 유머와 비유를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해설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해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엔 발표도 잘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민혁이. 하지만 해설 봉사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져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결국 곤충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까지 성공한 민혁이는 앞으로 곤충 전문 지식을 더 확장 시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정진할 계획이다.

심사평

지역 인프라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꾸준히 발전시킨 점이 돋보였다. 특히 지속적인 해설사 활동을 통해 체계화된 역량과 전문성을 얻게 된 점이 매우 의미 있으며 향후 더 확장된 활동 분야에서 전문가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이준하 | 대구중앙고등학교 3학년

대구

봉사활동을 먼저 시작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봉사 정신을 키운 준하는 특히 홀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줬고,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목욕방문차량을 청소했으며, 특히 주말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반찬도 장 봐주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있다. 하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는데, 집안 전체가 쓰레기 산으로 되어 있어 당황했지만, 종일 열심히 청소해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봉사를 목표로 하는 준하는 앞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대학교에 진학해 봉사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심사평

노인 말벗, 식사 봉사, 어르신 간식 챙겨드리기 등 쉽지 않은 봉사지만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모습을 크게 칭찬한다.



자원을 순화시키는 아트월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Flow Communicators | 대전대신고등학교 김은모 등 6명

대전

‘학생이자 또 한 명의 주인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Flow Communicators’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버려지는 폐조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이 문제에 맞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고민 끝에 폐팔레트 독서 테마 아트월을 선보였다. 직접 현충원에 방문해 형형색색 폐조화를 수거하고, 아트월의 시안을 만들고, 조화를 세척한 후 폐팔레트에 꽃으면서 거대한 아트월 작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Book’s Garden’, 대전대신고 ‘오랑 문화예술축제’ 등 도심 속 아트월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와 리사이클링의 가치를 알렸던 ‘Flow Communicators’는 더 나아가 폐조화 쓰레기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는 중이다.

심사평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폐조화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아트월을 제작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매우 돋보인다.



제한 두지 않는 봉사활동, 더욱 다양한 빛깔로 뻗어 가다

이채원 | 브니엘예술중학교 3학년

부산

합창단 무료 공연을 하면서 처음 봉사활동의 매력을 알게 된 채원이는 꽃밭 가꾸기 봉사, 요양병원 어르신들 도와드리기, 의료 봉사 등 봉사의 범위를 다양하게 키워나갔다. 교내 환경 봉사 동아리인 ‘그린닥터스’를 통해서 부산시민공원의 꽃밭을 가꾸고, 관리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도 꾸준히 했는데 점심을 챙겨드리거나, 휠체어를 끌어드렸다. 어느 날은 요양병원 어르신께 네일 아트를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한평생 이런 건 처음 해본다며 눈물을 보였고, 이에 진한 감동을 같이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의료 봉사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병원이 없는 마을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거즈와 테이블프를 미리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링거 속도 조절을 도와드리기도 했다. 채원이는 앞으로도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계획이다.

심사평

합창 봉사, 환경 정화 활동, 어르신 보조, 의료 봉사 등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봉사자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킨, ‘걸어서 김치속으로’

권순범 | 영광고등학교 3학년

서울

누나의 추천으로 ‘예스(Y.E.S)’라는 청년단체에 들어가 처음 봉사를 시작한 순범이는 열정 가득한 운영진들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22년과 2023년,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여성어르신 자서전 제작프로젝트 ‘달빛마을 언니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복지 지도 만들기 ‘노원복지지도’, 그리고 걸음 기부 프로젝트 ‘걸어서 김치속으로’이다. 이 중 순범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걸어서 김치속으로’는 주민들이 걷기로 모은 포인트를 김장 행사에 기부하는 활동이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당일 123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는데,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걷기와 기부 활동이 이어졌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하는 순범이는 앞으로도 동네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심사평

지역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 걸음 기부 프로젝트, 지역 복지 서비스 지도 만들기 등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작은 실천을 해온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누구보다 봉사의 의미를 잘 아는 깊이가 전달된다.



멘티와 멘토가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봉사

김수애 | 서울금융고등학교 2학년

서울

중학교 1학년 때 ‘동생행복프로젝트’라는 봉사활동으로 처음 봉사를 시작한 수애는 고등학생이 되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봉사의 범위를 넓혀왔다. 아동 권리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거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봉사활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학습 멘토가 되어주는 것인데, 수애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이전엔 몰랐던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수애는 겨울이 다가올 때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을 도와드리고, 가로수에 둘러줄 양말목 덮개 설치도 돕는다. 봉사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수애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의미 있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심사평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멘토링 봉사활동에 주력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참여로 확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 성장을 이룩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걷는 그날까지

베스트버디스SATC | 서울아카데미 박상휘 등 3명

서울

우연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친구 수는 평균 1.4명이고, 특히 60%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글을 보고 발달장애인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베스트버디스SATC’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친구 맺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엔 발달장애 관련 자료를 스테디하고, 발달장애 친구와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줌미팅 등의 활동을 했는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버디 친구 훈영(가명)이를 드디어 만나게 됐다. 휴일이면 훈영이와 만나 함께 탁구를 하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에 대한 내용의 원고를 영문으로 번역하며 통번역 활동으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는 ‘베스트버디스SATC’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봉사활동 계획을 꿈꾸고 있다.

심사평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과 이와 관련된 통번역 활동이 돋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심을 두고 봉사활동 펼치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고 직접 해결해나가는 청소년 마을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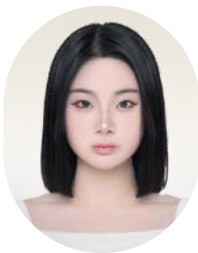
송다은 | 일산중학교 3학년

울산

음식을 만들어 꾸준히 기부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진 다은이는 청소년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소년 마을활동가’의 일원이 되었다.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해 온 다은이는 2022년엔 명덕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로 캐릭터를 공모해 캐릭터 스카프&에코백을 제작해서 마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렸다. 또 마을 홍보영상도 제작했는데, 특히 고양이의 시점으로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23년엔 150명의 소방관분들께 직접 만든 간식을 전달하기도 했고, 환경을 주제로 업사이클링 축제를 진행해 DIY 만들기 부스 7개를 운영해냈다. 또한 2024년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달하였다. 자원봉사는 언젠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다은이는 힘이 닿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사평

부모님의 봉사활동에 영향을 받아 봉사를 시작했으며,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봉사활동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르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행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



주도적인 봉사 실천을 통해 꿈을 키워가다

구서희 | 문곡고등학교 3학년

인천

초등학교 5학년 때,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머리 감겨드리는 봉사를 처음 해본 서희는 어린 나이였지만 뿌듯함을 느끼고 봉사의 매력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 유기견센터에서 유기견들을 산책시키고,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있다. 또한 어울림마당 행사에서 디퓨저와 각종 음료, 쿠키를 직접 만들어 판 수익금은 모두 청소년 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서희는 ‘은홀’이라는 자기주도봉사단을 단장으로서 이끌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게임 활동도 하고, 부채 만들기도 하는 등 ‘자기주도봉사단’이라는 취지에 맞게 봉사할 곳을 스스로 정하며 책임감 있게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사라는 꿈이 생긴 서희는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심사평

자기주도봉사단의 단장으로 유기견센터 봉사, 경로당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을 통해 원하는 직업을 찾게 된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에게 선사한 아트테라피

최윤영 | 채드웍송도국제학교 11학년

인천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외할머니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보낸 윤영이는 다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특히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이 상당하다는 걸 깨달았다.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 윤영이는 매월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재능기부를 해왔다.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 실로 바다 거북 만들기, 한국 탈과 아프리카 탈 비교하며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집중력과 자신감을 끌어냈다. 또한 윤영이는 청소년 아웃리치활동그룹 ‘We are One’ 2기 리더로도 활동하며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사는 낙후된 동네를 함께 개선해나가고 싶다는 새 꿈이 생긴 윤영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계획이다.

심사평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난민 지원 기관을 통해 아트테라피 수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본인의 작은 움직임으로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한 마음을 크게 칭찬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 봉사활동, 더 큰 봉사를 부른다

이다인 | 브랜섬홀아시아 10학년

제주

지적장애를 앓는 쌍둥이 언니가 있는 다인이는 우연히 학교 사회시간에 ‘장애인의 권리’를 탐구하다 친구들과 함께 쌍둥이 언니가 다니는 주간활동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날 큰 영감을 받은 다인이는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심분 이해하게 되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다인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센터를 방문해 책도 읽어주고, 스포츠 시간에 운동도 돕고, 함께 그림도 그리며 미술 작업을 도왔는데, 이 미술 작품들은 학교와 연계해 교내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또 손재주가 좋은 다인이는 ‘Able This’라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비즈 소품을 만들어 팔며 판매수익으로 기부를 해왔다. 장애인 봉사를 통해 더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히고 싶어졌다는 다인이는 환경보호, 교육지원, 사회적약자돕기 등 앞으로 봉사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

지적장애를 앓는 쌍둥이 언니가 다니는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손기술을 활용해 비즈 공예품을 판매하며 기부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크게 칭찬한다.



지역사회 함께 성장하며 알게 된 봉사의 가치

진종우 | 공주고등학교 2학년

충남

부모님과 함께 유기 동물보호소에 방문해 난생처음 봉사를 했던 종우는 이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봉사에 눈을 뒀다.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노인, 환경, 유기 동물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종우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활동해왔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빵을 만들어 나누는 하기도 하고, 머리 염색도 도와드리고, 치매 예방 컬러링북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특히 이 컬러링북은 미술관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함 7개를 학교에 비치해 약 4만 6천 개의 병뚜껑을 수거했고, 이를 이용해 키링과 생활용품으로 바꾸어 지역에 기부했다. 그리고 견사를 청소하고 직접 보살펴주며 유기 동물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덕분에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결정한 종우는 지역사회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평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활동 하나하나에 자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소년운영 위원장으로서 어떤 봉사활동이든 진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청소년 카페 운영을 통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유스플러스 | 설화고등학교 강사원 등 13명

충남

‘봉사로 그리는 청소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진 ‘유스플러스’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찾아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봉사활동 공간인 카페를 만들게 되었다. ‘유스플러스’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카페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해왔는데, 기자재 구입부터 음료 개발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번 수익금은 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아동 보호 기관 등에 기부해왔다. 카페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커피 로스팅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제과 기능사, 쇼콜라티에 등의 교육까지 받은 ‘유스플러스’는 이곳을 단순한 카페가 아닌 청소년들의 휴식처, 마을의 허브 역할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심사평

직접 청소년시설의 유휴공간을 찾아 카페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지역사회 어르신 및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동아리

재능나눔동아리 모꼬지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허서영 등 5명

충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온 ‘모꼬지’는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과 어울릴 만남의 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장애 청소년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신체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해왔다. 비장애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신체 프로그램 ‘다함께 통통’을 통해 플라잉디스크, 풍선 날리기, 터널 등의 활동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킹, 공예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활동을 하기도 했고, 봄소풍을 함께 훌쩍 떠나 같이 도시락도 먹고, 게임하는 시간도 보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꼬지’는 각종 축제에서 장애인식 개선 부스를 운영해 점자 부적 카드 만들기, 수어 퀴즈 등을 진행해왔다. 장애 청소년의 성장과 동아리 부원들의 성장을 함께 이뤄내는 ‘모꼬지’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로도 봉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심사평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매개로 다양한 소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모습이 돋보인다.





동상



1mm의 작은 도움이 모여 점점 커지는 봉사의 크기
밀리미터 | 남지여자중학교 황시현 등 7명

지역사회에 1밀리미터라도 도움을 주자는 뜻을 가진 '밀리미터'는 공원이나 길가에서 환경미화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께 안마와 말동무를 해드리며 위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직접 만든 쿠키와 마들렌을 나눠주고, 공부도 도와주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는 '밀리미터'는 지역사회에 점차 더 큰 도움을 나눠주며 꾸준히 봉사해나가고 있다.



내일을 더 예쁘게 만드는 네일 아트 봉사활동
네일더예쁨 |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백다원 등 16명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작한 '네일더예쁨'은 동아리 이름과 같은 전공을 살려 지역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네일 아트와 손 마사지, 패디 각질 관리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께는 목도리, 수세미, 효자손 같은 물품을, 아이들에게는 곰인형, 팔찌, 헤어핀 같은 물품을 직접 만들어 기부하고 있는 '네일더예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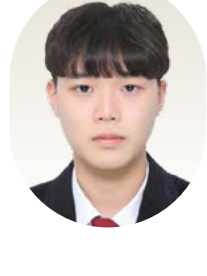
직접 제작한 물품을 나누며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토리
청토리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다은 등 6명

입양가정 청소년이 모여 만든 '청토리'는 베이비 박스의 아기들을 위해 직접 만든 모빌과 손싸개 등을 나누며 봉사를 시작했다.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모은 수익금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는 '청토리'는 2023년엔 남수단 아이들을 위해 운동화와 축구공을 제작해 나누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외 이웃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전하겠다는 새로운 꿈도 꾸고 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기적
권혜수 | 송현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태석 신부님 영화를 보며 큰 감명을 받아 봉사를 시작한 혜수는 3년 전부터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우미 활동, 플로깅 캠페인 등 가족과 함께 가족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소심했지만 봉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혜수는 사랑이 많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환경 보호부터 해외 봉사까지, 온 마음을 다하는 봉사활동
온맘다해 | 경상고등학교 김성준 등 8명

세상을 바꾼다는 각오로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하는 '온맘다해'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텀플러를 챙겨 다니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후 쪽방촌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하기, 독거 어르신들께 반찬 만들어드리기로 범위를 넓혀왔고, 2023년엔 몽골로 해외 봉사를 떠나 게르 짓기를 돕고 온 '온맘다해'는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찬 배달부터 미술 재능 기부까지, 폭넓은 활동의 프로 봉사러

방유정 | 대전예술고등학교 2학년

대전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를 해오고 있는 유정이는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12년째, 반찬을 만들어 사각 지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나눔을 6년째 해오고 있다. 또한 '미술' 전공을 살려 프리마켓에서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기부도 하고, 지역 아이들에게 타일 공예도 가르치며 재능 기부도 하고 있는 유정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폐의약품과 폐우유팩을 수거하며 지구를 지키는 지구별 방위대

지구별 방위대 | 대전노은고등학교 유예승 등 3명

대전

매월 정기적으로 폐의약품과 폐우유팩을 수거하고 있는 '지구별 방위대'는 연간 7개의 아파트에서 600kg이 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고, 매월 수거하는 250개 정도의 폐우유팩을 직접 씻고 말려 동사무소나 로컬푸드 매장에 전달하고 있다. 또 매년 2번, 부스를 운영하며 축제 기획단으로도 활동하는 '지구별 방위대'는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계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선율을 발전시키며 이어가는 봉사활동

김민하 | 해운대여자중학교 1학년

부산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며 봉사를 시작한 민하는 직업 재할 훈련생 음악 감상 활동 보조, 음악 지도 및 악기 지도 활동 보조를 도왔다. 또 매년 말이면 장애인 합창단 등과 함께 자선 공연을 펼치고, 모금액은 한국백혈병소아암 협회에 기부해왔다. 연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봉사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꾀다.



국제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환경 기업 창업으로 뻗어가다

박병주 | 서울외국인학교 11학년

서울

영국에서 태어나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며 자연스럽게 해외 난민 아이들에게 관심이 컸던 병주는 난민학교에 직접 방문해 교육 및 스포츠 체험 봉사활동을 해왔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 영어와 경제 교육 봉사활동도 해왔는데, 특히 환경 관련 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며 얻고 있는 수익은 봉사활동에 사용 중이다. 국제난민과 지역사회를 향한 병주의 사랑은 계속될 예정이다.



8년간의 꾸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나와 지역 성장을 모두 이룬다

장환준 | 상암고등학교 2학년

서울

2017년 처음 봉사를 시작한 환준이는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며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거리를 알리고 홍보해왔다. 또한 청소년 아지트나 스터디 라운지의 리모델링을 주도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준 환준이는 8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나와 지역'의 성장을 모두 이루고 있다.



K-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국가지킴이

서지훈 | 채드웍송도국제학교 10학년

인천

고미술품을 고향에 모두 기부한 할아버지를 보며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관심을 가진 지훈이는 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 자격을 이수해 경복궁과 창덕궁 등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알리며, 탑골공원과 흥인지문 일대에서 환경정화와 캠페인 활동을 이어왔다. 또 국가유산지킴이 동아리를 만든 지훈이, 앞으로 K-문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지훈이의 날갯짓은 계속될 예정이다.



나와 너, 우리를 잇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비봉사단

나비봉사단 | 검암중학교 조현준 등 15명

인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나비봉사단'은 2020년엔 '곰목을 잇다'라는 주제로 지역 도서관과 노인문화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도서관에서 방문객 안내, 서가 정리 등의 활동을 펼쳤고, 허브차와 수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나비봉사단'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좋아하는 요리를 통해 나누고 봉사하는 행복한 재능 나눔

왕윤성 | 순천효산고등학교 1학년

전남

요리에 관심이 많은 윤성이는 좋아하는 요리 재능을 나눔하며 봉사활동을 해왔다. 베이킹 재능 나눔 봉사단에 가입해 디저트를 만들어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해왔고, 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요리 프로그램 보조자 역할까지 훌륭히 해냈다. 조리사가 꿈인 윤성이는 앞으로도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확실한 꿈을 꾀다.



가족봉사단을 통해 탄탄히 다져진 봉사 정신

조용민 | 광양제철중학교 2학년

전남

목공과 반찬 나눔 봉사를 하는 부모님을 따라 봉사를 시작한 용민이는 가족봉사단 '토토봉'과 청소년 '재능왕' 봉사단 활동을 하며, 물김치와 딸기청 같은 음식을 만들어 조손가정과 소방서 등에 나눠왔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플로깅처럼 환경보호 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또 요양원 봉사를 통해 꿈과 목표가 생긴 용민이는 앞으로도 봉사 계획을 세우며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직접 구운 빵으로 지역사회를 따듯하게 데우는 동아리

빵보드레 | 동광양중학교 박규리 등 17명

전남

빵을 통해 세상에 달콤한 청소년 맛을 전하려는 '빵보드레'는 복지관과 경로당, 특수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구운 빵과 과자를 전달하며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또 지역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빵보드레'는 이름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빵으로 나눔의 기쁨을 전달하고 따듯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부터 머리카락 기부까지, 끊임없는 봉사활동

유지은 | 이리남성여자중학교 2학년

전북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연탄 봉사, 엑스포 유치 기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부스 기획 등 다양한 봉사를 경험하며 점차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지은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도 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제안하고 있다. 또 봉사 범위를 넓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지은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요리를 나누며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출동!

OVC(구.동요) | 진안여자중학교 김혜진 등 9명

전북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OVC(구.동요)'는 지역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요리를 나눠주는 봉사를 했는데, 점차 장소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봉사의 미덕이지만, 반대로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는 'OVC(구.동요)'는 불러주는 곳으로 출동하기 위해 상시 준비 중이다.



제주도의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세이브제주바다 유스클럽 | 브랜섬홀아시아 정예원 등 16명

제주

'세이브제주바다 유스클럽'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제주도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년에는 제주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캠페인인 노플라스틱 스쿨 캠페인을 진행해 1만여명 참여를 이끌었고, 2024년에는 찾아가는 해양쓰레기 전시회를 직접 기획해 운영했다. 정기적으로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치는 이 클럽의 환경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공동체 사랑의 힘으로 점점 확장되는 봉사활동

최혜울 | 한서중학교 3학년

충남

공동체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한 혜울이는 태조산공원 환경정화 활동으로 처음 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던 혜울이는 지산공원으로 지역을 넓히기도 하고, 안마봉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전달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센터 북카페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분야로 활동 영역도 넓혀왔다. 공동체 행복을 위한 혜울이의 봉사는 더 확장될 예정이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 선봉자

주명훈 |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부모님의 추천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명훈이는 기관장 간담회, 청소년축제 '호루라기' 기획,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교육봉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명훈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도 활동하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행사와 정책 제언에 적극 참여해왔는데,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도 도전해볼 계획이다.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소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KB금융그룹,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가 후원하는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사례를 널리 알려 우리 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자원봉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 총 144,533명의 청소년들이 응모하였고 그 중 37,309명의 청소년들이 대회를 통해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회 대회부터 한결같이 임직원들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대회를 소개하고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발굴된 우수 봉사활동 사례는 사례집과 교육용 영상으로 제작되어 전국 학교 및 기관에 배포되어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 이후에도 역대 수상자 모임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Alumni (역대수상자 모임)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회정신을 이어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은 역대 수상자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 기수별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Catch the Sprit Day

수상자 간 성장과정과 향후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역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Catch the Sprit Day'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회 서포터즈

매년 수상자를 중심으로 한 대회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역대수상자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시상식 부스 운영, 대회 홍보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속적인 수상자간 네트워킹과 더 많은 청소년의 대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